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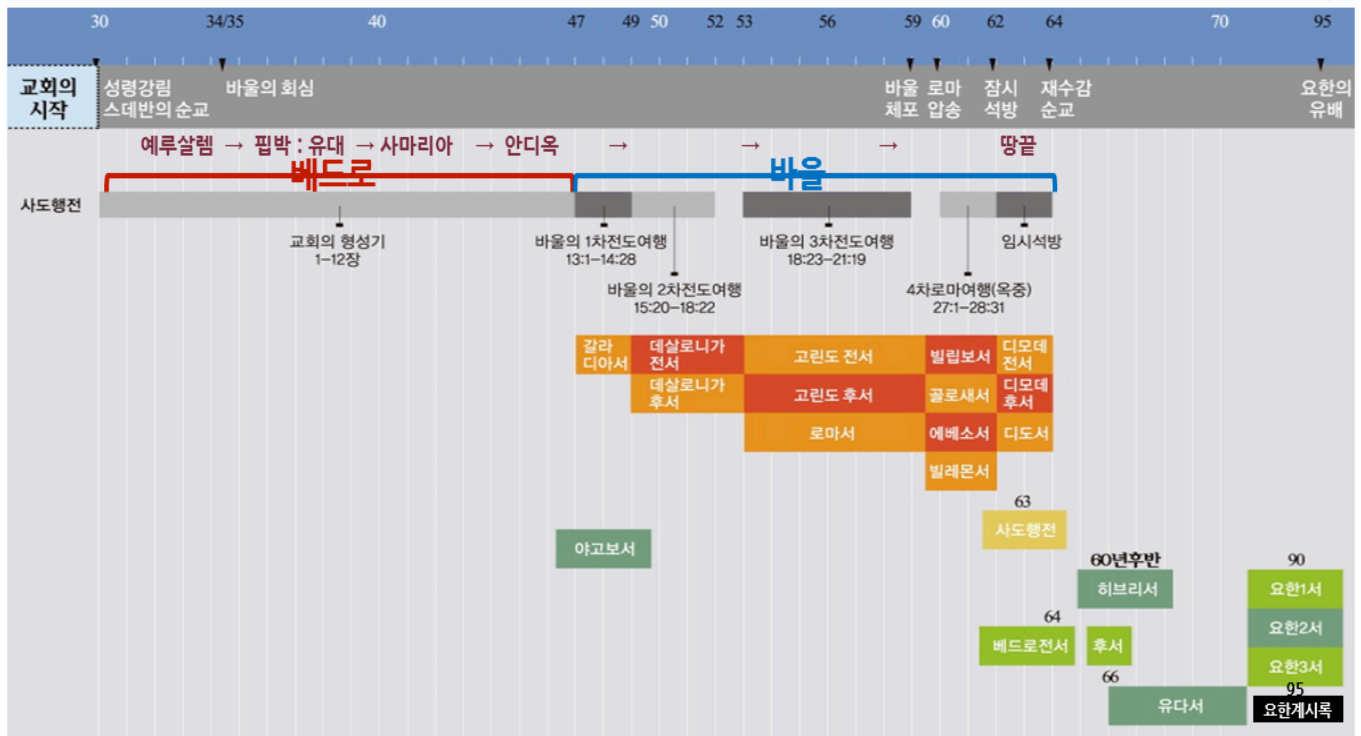
■ 이번 주 성경 읽기 일정

- 3/27 (월) 78 일 - 행 15:36-18:22, 살전 1-5 장, 살후 1-3 장
 3/28 (화) 79 일 - 행 18:23-19:22, 고전 1-6 장
 3/29 (수) 80 일 - 고전 7-16 장
 3/30 (목) 81 일 - 행 19:23-20:1, 고후 1-13 장
 4/01 (금) 82 일 - 행 20:2, 3 상, 롬 1-16 장
 4/02 (토) 83 일 - 행 20:3 하-28 장, 빌 1-4 장
 4/03 (일) 84 일 - 몬 1 장, 골 1-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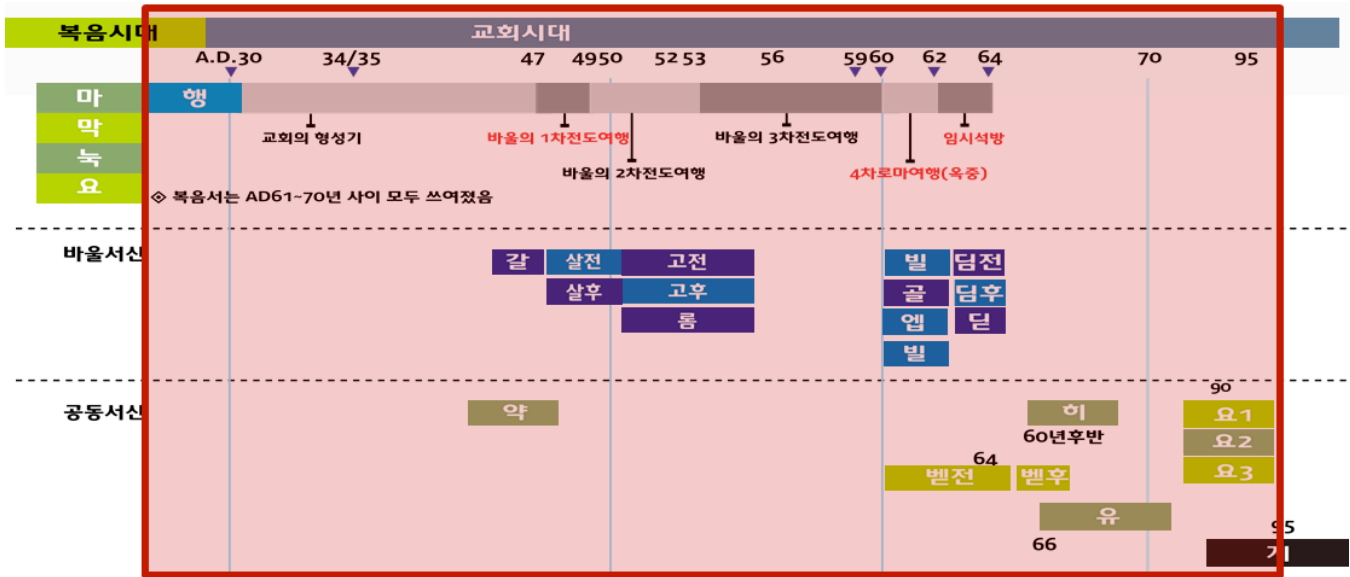
■ 바울 서신을 읽기 전에

- 1) 교회 혹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에서 쓰여진 상황적인 편지들이다.
 특정한 교회 혹은 개인에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들이라는 말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성(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진 편지인지)을 유의하며 읽어야 한다.
- 2) 로마제국과 유대교라는 1 세기 당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
- 3) 각 편지의 수신자들과 발신자인 바울의 심정을 같이 살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
- 4) 교리적인 내용(칭의)과 실천적인 내용(성화)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

■ 시대로 본 교회 시대



■ 시간 흐름으로 보는 교회 시대



■ 시간 흐름에 의한 서신서 분류

무슨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의 시간흐름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30 ■ 예수님의 승천 성령강림	교회의 형성기 (예루살렘) (행1장-7장)			
32 ■ 스테반의 순교	교회의 변혁기 (유대와 사마리아) (행8장-12장)			
33 ■ 바울의 회심	교회의 확장기 (땅끝까지) (행13장-28장)	갈라디아서	아고보서	
47 ■ 바울의 1차전도여행 (49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49 ■ 예루살렘 공의회 바울의 2차전도여행 (51년까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52 ■ 바울의 3차전도여행 (57년까지)				
54 ■ 네로황제 즉위 (68년까지 통치)		우물지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58 ■ 바울의 체포, 로마 압송				
60 ■ 바울의 옥중생활		복음지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64 ■ 로마의 대 화재			유다서 요한 1,2,3서	
67 ■ 바울, 베드로 순교				
68 ■ 네로의 죽음				
70 ■ 예루살렘 파괴				
95 ■ 사도요한의 빛모임 유배				요한계시록

■ 데살로니가전후서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교훈 / 종말에 대한 바른 기대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고, 미혹되지 않고 바른 전통에 서도록 권면합니다.

1) 감사(살전 1~3장)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며,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2) 권면(살전 4~5장)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며, 항상 깨어 있어 주의 강림을 대비하라고 권합니다.

3) 미혹의 경계(살후 1~3장)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미혹하는 말에 속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바르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1) 배경 알기

- 주후 50-51 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신약의 초기 문서로 추정된다.
-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그리스)의 주요한 항구도시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다.
-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했고 후에 보고를 받았다.
- 이제 막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을 위한 감사와 격려와 권면과 교훈의 서신이다.

2) 내용 이해

- 바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염려와 그들의 상황이 좋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 바울이 느끼는 안도감(3:6-8).
-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난다;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3) 다른 서신과의 관계: 빌립보서와 함께 읽는 것이 유익하다!

-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전서, 두 서신 모두 마케도냐의 도시들에게 보내진 것이다.
- 그곳의 시민들은 고대 사회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매우 유명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박해를 당했다.

4) 오늘의 우리에게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교훈함으로써 종말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갖게 한다.
- 성도들이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지켜야 할 여러 지침들을 가르쳐 준다(5:12-22).

🌈 바울이 최근에 새로 개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이미 아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상기시키는지 알게 된다(1:5, 2:1,5,9,10,11, 4:2, 5:1).

- cf. 디모데에게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 딤후 3:14
- “Continue you in the things which you have learned and have been assured of”

● 데살로니가후서

1) 배경 알기

- 주후 51 년경,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직후에 썼다.
-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며, 다른 이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성실히 일할 것을 권면하는 서신이다.

2) 내용 이해

- 어떤 이들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했고, 그로 인해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 거짓 자체와 그 거짓을 자신의 권위를 빙자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에 바울은 분노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15 에서 말(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한 말)과 편지(데살로니가전서)로 그들에게 가르친 교훈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한다.
- 바울은 게으르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그들이 일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고, 둘째로 그리스 귀족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육체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 때문이었다.

3) 오늘의 우리에게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교훈함으로써 종말에 대한 바른 기대를 갖게 한다.

■ 고린도전후서

1 들은 문제 (고전 1~6장)	<p>바울은 먼저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음행의 문제들에 대해 권면을 합니다.</p> <div> <div>1) 분쟁(1~4장)</div> <p>성도들이 각각 추앙하는 지도자를 따라 파당을 나누어 분쟁하는 것은 미숙한 일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p> </div> <div> <div>2) 음행 외(5~6장)</div> <p>공동체 안의 음행하는 자는 교회의 권위로 징계해야 하며, 성도의 분쟁 역시 세속 법정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다뤄져야 합니다.</p> </div>
2 쓰는 문제 (고전 7~16장)	<p>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로 써서 직접 바울에게 문의한 문제들에 대해 권면합니다.</p> <div> <div>1) 개인 성결(7:1~11:1)</div> <p>결혼, 부부관계, 재혼, 우상 제물 등 개인의 사생활에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들을 다룹니다.</p> </div> <div> <div>2) 공동체 질서(11:2~16장)</div> <p>공동체 예배에서 머리 덮개를 쓰는 것, 성찬식 및 은사 활용 등 공동체 질서에 관계된 문제들을 다룹니다.</p> </div>
3 변론 (고후 1:1~7:1)	<p>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서 자신의 직분과 사역,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 변론했습니다.</p> <div> <div>1) 서두(1:1~2:11)</div> <p>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하고자 했으나 첫 방문 때 도전에 부딪혀 다시 가지 않은 경위를 설명합니다.</p> </div> <div> <div>3) 바울의 직분(2:12~7:1)</div> <p>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며 확고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p> </div>
4 권면 (고후 7:2~13장)	<p>바울이 회개한 자들에게 긍정적인 위로를 하고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합니다.</p> <div> <div>1) 회개자(7:2~9장)</div> <p>바울을 대적하는 자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연보에 대해 권면했습니다.</p> </div> <div> <div>2) 대적자(10~13장)</div> <p>바울은 여전히 대적하는 자와 가까이 동조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하며 사도적 권위를 변호했습니다.</p> </div>

● 고린도전서

1) 배경 알기

- 주후 약 53-54 년 에베소에서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록했다.
- 고린도는 교역을 위한 전략적 위치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다.
- 또한, 매우 종교적인 도시이자(모든 이주자들이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갖고 왔다) 동시에 도덕적으로 퇴폐적인 도시였다.
-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었고, 노예와 자유인, 이방인과 유대인(12:13)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 이전의 많은 인습들을 끌어들이었다.
- 고린도 교인들은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었으나 지적 자만심이 가득했다.
-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7:1)와 인편으로 받은 보고(1:11, 5:1)에 답한다.

2) 내용 이해

-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열 한가지 이상의 문제들을 차례로 다루고 있다.
- 각 경우에 바울은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말로 얼마나 자주 그들을 자극하고 있는지 주목하라(3:16, 5:6, 6:2, 3, 9, 15, 16, 19, 9:13, 24)
- 책망의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 되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 교인들의 분열에 대하여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다(1:10-17, 12:4-6, 13:13).
- 교회의 일체성과 관련해, 바울은 약한 자들과 그들의 양심을 고려하여 행동할 것을 충고했다(8:1-3, 10:23-33).
-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과 방언의 문제에 바울은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질서를 중요시했다(14:5, 28).
-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도 바울은 성도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을 강조했다(11:23-24).
- 고린도전서의 많은 부분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을 공격하고 복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1:18-125, 6:4, 6:19).

🌈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

- 고린도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가 갖는 문제의 본보기들을 가진 교회였다. 이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가 복음의 핵심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두 가지 기본적인 신학적 진리 [십자가(1:17-2:16), 부활(15:1-58)]를 이 서신의 앞 뒤에 배치한다. 고린도전서의 다른 모든 내용은 이러한 두 가지 진리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열쇠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2:6-16).

● 고린도후서

1) 배경 알기

-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낸 같은 해에 기록했다.
- 고린도 교회와의 지속적이면서도 고통스러운 관계를 다룬다. 이 관계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거의 없고 고린도후서에서 그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2) 내용 이해

- 주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악화된 관계의 문제(고린도 교회가 갖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옹호)를 다루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다른 문제들(교회 안에 침입한 유대 그리스도인 순회 전도자들 척결)을 다루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의 구제를 위한 연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3) 고린도전서와의 관계

- 연보에 대한 관심(고전 16:1-4 / 고후 8-9 장)과 고린도후서 6:14-7:1 에서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외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사도직과 관련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긴장이 두 책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4) 오늘의 우리에게

- 십자가의 약함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한다.
-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연보의 원리

- 미리 준비해야 하고,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 자기 희생적인 마음으로 해야지 과시나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된다.

■ 빌립보서 - 내적 기쁨

성도들에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겸손히 서로 돌보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1) 바울의 기쁨(1:1~26)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이지 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2) 기쁨의 권고(1:27~2장)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으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며,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고합니다.

3) 주 안에서 기뻐함(3~4장)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급을 기다리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1) 배경 알기

- 주후 62 년경, 로마에서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록되었다.
-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교회 소식을 알려주고 교회의 선물을 전달한 에바브로디도(2:30, 4:18)가 위중한 병에서 회복되어 빌립보로 돌아가려 할 때 편지를 보냈다.
- 빌립보는 로마의 군사적 식민지로서, '주와 구세주'인 황제에 대한 헌신과 함께 황제 숭배가 융성하였던 도시였다. 이러한 충성심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와 구세주로 섬기는(3:20) 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하였다.
- 고난을 당하며, 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 그들의 섬김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에 대한 몇 가지 격려와 그리스도를 본받고(2:5-11) 그리스도의 종인 자신을 본받도록(3:4-14) 하는 권면을 담은 서신이다.
- 바울은 어떤 서신에서보다 자신의 속마음을 더 많이 털어놓는다(1:12-26, 3:4-14).

2) 내용 이해

-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 받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여 능히 이겨내기를 권고한다(1:29-30).
-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위치는 교회 내에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두 여인을 중심으로 파가 갈라질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4:2).
- 바울은 분파 문제를 서두에 꺼내지 않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낮아지심, 온유하심과 고난 받으심을 서두에 배치해서 그들로 깨닫게 한 다음 말미에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 '모두'라는 단어를 많이 써 가면서 이 분쟁의 문제를 풀어가는 바울의 지혜가 엿보인다.

3) 오늘의 우리에게

- 내부적인 분열과 외부적인 핍박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연합할 것, 감사할 것, 기뻐할 것, 헌신과 용서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배울 것 등에 대해 교훈한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들은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닮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 주신 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다.

■ 빌레몬서 - 관용의 요청

바울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원 주인에게 돌려보내며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1) 인사와 칭찬(1~7절)

바울이 빌레몬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예수와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2) 요청(8~20절)

오네시모를 원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를 선처하고 돌려보내 주기를 요청합니다.

3) 마무리(21~25절)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며 다른 요청과 함께 끝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 배경 알기

- 60-61 년에 자기 집을 교회 위해 개방한 골로새의 이방인 신자 빌레몬에게 썼다(골 4:9).
-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으로 맨 뒤에 놓여 있다.
- 이 서신의 목적은 오네시모라는 주인에게 도망친 종의 용서를 간청하는데 있다.
- 첫 인사와 끝 인사는 빌레몬이 이 서신을 교회와 함께 읽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신자가 복수형 ‘너희’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단지 빌레몬에게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임을 증거한다.

2) 내용 이해

-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그의 조력자가 된 오네시모를 원주인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며 그를 용서해 주고 받아 줄 것을 권면하는 개인적인 서신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연합이 유지되도록 교훈하는 것이다.
-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주의 깊게 복음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 복음은 유대인(바울)과 이방인(빌레몬)은 물론, (도망친) 종과 주인을 화해시키고, 그들을 형제가 되게 한다.

오네시모의 처지에서 상상해 보자! (골로새서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훔쳐서(18-19) 가능한 한 먼 곳(로마)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 이제 그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 앞에 선다. 그리고 골로새서와 이 서신이 회중 앞에서 낭독된다.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 우리는 빌레몬이 이미 이 서신을 읽었으며, 그래서 이 서신을 교회에서 낭독하는 것은 그가 바울의 서신과 그의 부탁을 모두 수용한다는 공개적인 표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오네시모가 참석한 가운데 골로새의 교인들이 이 서신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있는 것과 그들 역시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골로새서를 읽어보자!
-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결국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한다.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룬다!

3) 오늘의 우리에게

-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이 서신이 성경에 포함된 것은, 복음의 진리가 역사와 그 역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 이야기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복음은 곧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야기 안에도 존재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인 종이 되신 사실과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 받은 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보게 된다.

■ 골로새서 - 거짓 교훈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선언하고, 그에게 속한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1) 그리스도의 나라(1:1~2:5)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된 세상이 그의 죽으심으로 화목되었습니다.

2) 초등학문(2:6~23)

거짓된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3) 위에 속한 삶(3~4장)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땅에 속한 욕심을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1) 배경 알기

- 60-61 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썼다.
- 바울은 개인적으로 직접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지만(2:1), 골로새 교회 및 여러 교회를 설립한,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소식의 대부분은 좋은 것이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했다.
-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계속 자라가도록 격려하고, 외부의 종교적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보낸 서신이다.

2) 내용 이해

-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많은 내용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다; 거짓 교훈의 가장 명백한 요소는 유대적인 색채이며, 할례, 음식 규제, 유대인의 종교적 절기 준수를 포함한다. 이 유대적인 요소는 천사들이나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미신과 혼합된 것이다. 또한 이 미신은 신적인 철학 -고상한 지혜- 과 신적인 비밀을 가장하여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 바울은 만물과, 창조와 구속, 그리고 영적 권세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하실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므로 그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가 진정한 '머리'이시다(1:18, 2:10, 19).

🌈 오네시모로 연결되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하려 빌레몬에게 돌아가고 있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도록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다(4:9).
- 잃은 양의 비유(눅 15:4-7)를 떠올리며 오네시모와 골로새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3) 오늘의 우리에게

-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 교회의 모습, 참 기독교의 모습, 참 일꾼에 관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든 위엄과 신성 및 영광 가운데 계신 주 예수를 충실하게 묘사해 준다.

■ 디도서 - 성도의 선행

바울이 그레데의 목회자 디도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도록 바르게 지도하라고 합니다.

1) 지도자(1장)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거짓 선생들은 책망하여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합니다.

2) 선행 지도(2장)

교회 안의 여러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도록 지도하라고 합니다.

3) 온유한 대처(3장)

성도들도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외부의 사람들에게 대해 온유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 배경 알기

- 62-63 년에 이방인 동료 디도에게 보낸 서신으로 디모데전서와 후서 사이에 썼다.
- 바울은 디도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완수하도록 그레데에 남겨 두었다.
- 일부 거짓 교사들을 배경으로 자격을 갖춘 장로들의 임명과 다양한 사회 집단을 위한 교훈을 포함하여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디도에게 주는 서신이다.

2) 내용 이해

- 바울은 방종하는 그레데인들을 깨우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지도하라고 말하며(1:12-13),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것을 강조한다.
- 또한 이단들의 잘못된 교훈에 대해 경계할 것과 장로들이 해야 할 일도 말하고 있다.

3) 다른 서신과의 관계

- 디도서는 거짓 교훈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는 디모데전서의 요약본처럼 보인다. 또한, 장로들의 자격 요건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책망은 여러 면에서 디모데전서와 매우 유사하다.
- 디모데후서가 목회자의 각오를 강조했다면, 디도서는 성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목회자가 성도 개개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할 것을 권면한다.

4) 오늘의 우리에게

- 디도서에서 바울은 선행을 강조한다. 그에게는 은혜와 선행 사이의 긴장이 전혀 없다. 선행은 은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된다. 은혜와 선행이라는 두 주제는 디도서 안에서 통합된다.
-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선택 받은, 특별한,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4).
-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선행해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